❖ **탐방** - 권 태 강 검교공파회장

사선을 세 번 넘고서야… 이제 철학이 보인다

招待作家證書

姓名 尹泰姬

貴下는 本會 招待作家管理運營規程에 의하여 社團法人 韓國書畵作家協會 招待作家로 選定되었으므로 이 證書를 드립니다.

2017年 12月 8日

韓國書畵作家協會

권태강 회장(86, 검교공파회장)은 사선을 세 번이나 넘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6.25)에 군번도 없이 참전했다. 학도병이자 무명용사였다. 총탄 세례에 부상을 당한 후 다시 전투에 참여한 후에야 군번을 받았다.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총탄이 박혀있는 왼쪽 무릎 밑이 날이 궂을라치면 아프고 에리다. 첫 번째 죽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두 번째 사선은 50대에 느닷없이 찾아왔다. 대장암이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산 아픈 기억을 몸은 온전히 축적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약 5년여 전에 불청객 담도암이 염치도 없이 방문했다. 마음의 준비도 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다. 지나고 보니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人命在天)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얼마 전에 지나가는 길에 동백꽃이 너무 예뻐서 화분 하나를 샀다. 주인 할머니는 꽃이 곧 핀다고 했다. 그 말만 믿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수일이 지나도 꽃은 피지 않았다. 안쓰러워, 솔직히 말해 꽃을 억지로 피우기 위해 물을 주고 했는데도 끄덕도 하지 않았다. 피었던 꽃마저 떨어졌다. 그런데 입춘 때가 다가오자 새로운 싹이 움트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중에야 알았다. 꽃은 가게에 있을 때 적당한 환경 조성으로 겨우 한 송이를 피우고 있었는데 집으로 옮긴 후에 너무 추웠는지 나머지는 내가 필 때가 아니구나 하고 피기는커녕 꽃망울 자체를 버렸다.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사실을 동백나무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필 때와 피면 안 되는 때를 꽃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루는 아파트 화단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난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생기가 돌고 있었다. 집으로 들여 TV 옆에 두었다. 어느 날 문득 난의 잎사귀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그 귀로 TV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노래 좋아하는 난초인줄 난생처음 알았다. 난초는 나처럼 노래를 좋아하나 보다.

중학교 때의 일이다. 고모부께서 산 속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퀴즈를 냈다. "뱀과 지네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냐 ? "덩치 큰 뱀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독한 지네가 이길 것 같기도 하여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지네가 이긴다"고 했다. 산속에서 싸움이 한판 벌어졌는데 몇 번이고 엎치락뒤치락 하더니만 지네가 몸집은 작지만 뱀의 목덜미를 물고 그 많은 다리로 뱀의 몸에 착 달라붙어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 뱀이 맥이 풀려 결국 지네가 이겼다는 것이다. 자연은 미물이라도 사물의 핵심, 즉 급소를 알고 있다.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누가 칼자루를 쥐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진다. 사안에 따라 독약을 써서 단방처방으로 죽든 살든 끝낼 수도 있지만 말이다.

돌이켜 보니 60대까지의 지식은 그저 교만한 지식이었던 같다고 말한다. 죽음의 문턱을 세 번 넘고 인생의 배움을 반추해보니 70, 80을 살았으면 70, 80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는지 또 그만한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특히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60이면 거의 다 삶을 마감하여 그에 맞는 경륜과 지식도 같이 소멸했는데 요즘은 인류역사상 새로운 삶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말한다. 공자가 인생 70을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고 했던가. 공자보다 10여년을 더 장수하고 있는 요즘 "식물과 대화하면서" 자연의 이치와 삶의 이치를 깨닫고 있다고 말한다. 놀라운 통찰력이다. 이제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를 더 경계해야 하지만 난초에서, 동백 등 소소한 일상에서 올라갈 때 못 본 철학들이 보인다고 웃으면서 말한다.

부인 월소 윤태희(月沼 尹泰姬) 여사는 2017년 초대작가로 선정되면서 서예작가(사단법인 한국서화작가협회)로서 추사체로 한 획 한 획 인생철학을 쓰고 있다.

(취재 권행완)

권도(權道)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하는 것이 권도

권도는 동양사상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유가의 비조인 공자를 비롯해 맹자, 신유가의 주자, 도가의 장자, 관자, 회남자 등 역사적으로 다수의 사상가들이 권에 대해서 또 권과 경의 관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들을 해 왔다. 맹자는 "남녀가 주고받기를 친히 하지 않아야 예(禮)이지만, 형수가 물에 빠졌다면 손으로 구하는 것이 권도"(離婁上章句上)라고 말한다. 평상시에는 남녀가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아야 예에 어긋나지 않지만 비상시에는 일상의 예에 어긋난 것 같은 행위라도 손잡고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수가 물에 빠져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형수를 구하지 않는 것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허우적거리는 형수의 손을 잡고 살리는 것이 도리에 맞다는 얘기다. 이것이 권(權)이라고 맹자는 설명한다. 이 말은 한대(漢代)의 '경(經)에 반하더라도 도에 부합한다'는 반경합도(反經合道)의 모태가 된다.

이 반경합도(反經合道)는 송대(宋代)에 오면서 비판받는다. 결과만 좋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괜찮다는 결과지상주의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이천은 "예나 지금이나 권자(權字)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재주를 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랬다 조랬다하는 것이거나 권모술수"라고 말한다. 정이천은 사태의 경중을 저울질하여 의(義)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권이라고 주장한다. "경을 거스르는 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권은 다만 경일뿐이다."(權只是經) 권은 곧 경(權卽經)인 것이다.

이후 반경합도설과 권즉경설은 역사적 사태를 바라보는 이론적 틀을 제공했고 또 정치가들은 이 이론적 입장에 따라 정치공동체의 사태에 직면해 왔다. 송양지인(宋襄之仁)이라는 고사가 있다. 춘추 시대 송(宋)나라 양공(襄公)은 초(楚)나라와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참모가 초나라 군사가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급습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송양공은 "남이 곤경에 빠졌을 때 공격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결과는 참패였다. 공동체의 존망이 걸려 있고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군주가 전쟁터에서 군자의 도리 운운하다 참패한 사건이다. 훗날 송양공은 어리석은 군주의 표본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글 권행완)

■ **이달의 詩**

'휘어진 길 저쪽'

시인 권 대 웅

세월도 이사를 하는가보다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시간과 공간을 챙겨
기쁨과 슬픔, 떠나기 싫은 사랑마저도 챙겨
거대한 바퀴를 끌고
어디론가 세월도 이사를 하는가보다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
기억 속에는 아직도 솜틀집이며 그 옆 이발소며
이빨을 뽑아 지붕 위로 던지던 기와의 너울들

마당을 지나 아장아장 툇마루로 걸어오던
햇빛까지 눈에 선한데

정작 보이는 것은 다른 시간의 사람들뿐
저기 부엌이 있던 자리
지금은 빌라가 들어선 자리
그 이층 베란다쯤 다락방이 있던 자리
엄마가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가슴에 초승달처럼 걸려있다.

몇 년 만에 아기를 업고 돌아온 고모와
고모를 향해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는
말없이 펌프질을 하던 할머니는
그 마당 그 식솔과 음성들 그대로 끌고
모두 어디로 갔을까

낯설어 더 그리운 골목길을 나오는데
문득 내 마음속에 허공 하나가 무너지고 있었다
허공의 담장 너머 저기
휘어진 골목 맨 끝
기억의 등불 속에 살아오르는 것들

오, 그렇게 아프고 아름답게 반짝이며
살고 있는 것들.

시조 태사공·2세 낭중공 춘향제 안내

시조 태사공·2세 낭중공 춘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족친여러분들의 많은 참제 바랍니다.

❖ 일 시 : 2018년 4월 6일 (금, 한식) 오전 9시
❖ 장 소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번지 능동재사
❖ 종무위원회 : 시조 태사공·2세 낭중공 춘향제에 대한 심의
2018년 4월 5일(목) 오후 5시
❖ 대 당 회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추원재

☎연 락 처 02)2695-2483~4(대종회사무처)
054)854-2256(안동사무처)

2018년 3월 1일

안 동 권 씨 대 종 회

세무법인 화인

대표세무사: 권 혁 창 (權赫昶) (010-3680-5057) 복야공파36代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해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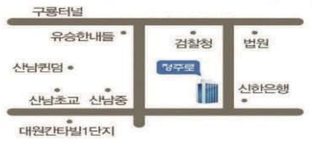
7명의 경력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청주의 법률섬김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길잡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CJ LAW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주로 CHEONGJU LAW

대표변호사 권태호

- 안동권씨 추밀공파 33세손
- 안동권씨 대종원 부총재(현)
- 안동권씨 충청북도 종친회장(현)
- 춘천지검장/대전고검차장검사
- 청주지검/인천지검 차장검사
- 서울동부/부산/광주지검 부장검사
-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 검사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 대검찰청 과장, 법무부 검사
- 안산(초대)/충주지청장



구성원 변호사

대표변호사	유재풍	변호사	박종일
대표변호사	김준회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종원(제천)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산남동657) 엔젤변호사빌딩 7F(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EL. 043-290-4000(대표전화) FAX.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형사/행정/가사/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 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공증/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